

[퀀트]

유명간
 02-3774-1917
 myounggan.yoo@miraeasset.com

퀀트 코멘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3월 27일(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에는 지정일 다음날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해 주가의 비정상적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은 <표 1>과 같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기업들은 익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실제 규정을 적용했을 때 2017년 1월 2일 ~ 3월 22일까지 KOSPI 6건, KOSDAQ 5건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되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공매도가 많았던 기업은 주가가 부정적이었다. 주간 단위로 공매도 비율(공매도 거래량/상장주식수)이 높았던 그룹과 낮았던 그룹의 주가 수익률은 연평균 각각 -4.8%, +3.4%를 기록해 주가 차별화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매도 비율이 높은 그룹의 주가 상승확률은 벤치마크 대비 42.6%, 시장 하락국면에서 주가 상승확률은 29.6%로, 하락장에서 주가가 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그림1,2 참조).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6월말 도입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나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증시에서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선행되어야 한다(그림3 참조). 연초 이후 KOSPI의 대차잔고는 약 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 금액도 약 9.5조원으로 과거대비 높은 수준이다(각각 3/22, 3/17 기준). 이처럼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숏커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연초대비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표 2>와 같다. 또한,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익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들은 숏커버링 이후 주가가 상승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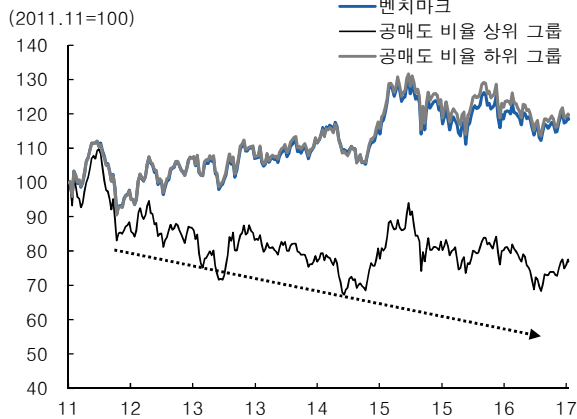
| 시장구분 | 지정기준 (3가지 모두 충족) | 절차 |
|--------------|--|---|
| KOSPI | 1. 당일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이상 2. 공매도 비중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이상 증가 3. 주가 전일 증가 대비 5%이상 하락 | T일(18시 이후):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및 공표 T+1일: 공매도 거래금지 T+2일: 해제 및 공매도 허용 |
| KOSDAQ/KONEX | 1. 당일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비중 15%이상 2. 공매도 비중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이상 증가 3. 주가 전일 증가 대비 5%이상 하락 | |

자료: 한국거래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퀀트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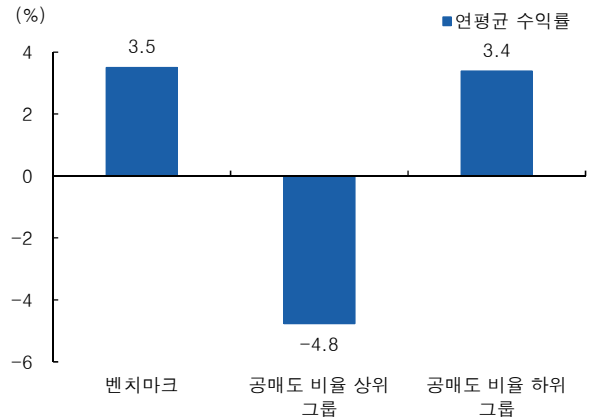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그림 1. 공매도는 주가에 부정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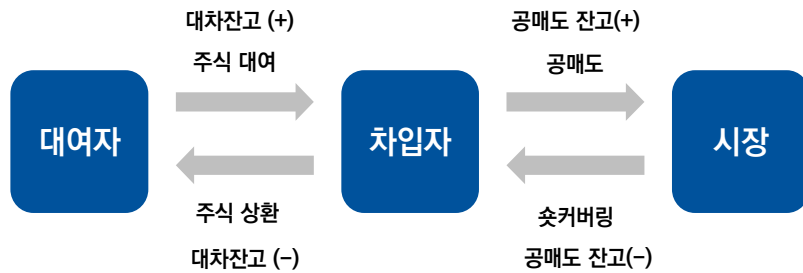
주1: 공매도 비율= 주간 공매도 거래량/상장주식수
 주2: 공매도 비율 변화 상위20%와 하위20%로 구분해 주간단위 리밸런싱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공매도 비율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연평균 수익률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3. 공매도와 대차잔고 관계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2. 연초이후 대차잔고, 공매도 잔고가 증가해 숏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단위: %)

| 종목코드 | 종목명 | 시장 | 업종 | 대차잔고 비율 | | | 공매도잔고 비율 | | | 공매도 비율 월 평균 | 주가수익률 | | | OP 변화율 (1Q17, 1M) | OP 증가율 (1Q17, YoY) |
|---------|--------|----|---------|---------|------|------|----------|-----|-----|----------------|-------|-------|-------|----------------------|-----------------------|
| | | | | 현재 | 2월말 | 연초 | 현재 | 2월말 | 연초 | | 1W | 1M | YTD | | |
| A008770 | 호텔신라 | KS | 호텔, 레저 | 27.2 | 23.7 | 23.1 | 10.4 | 8.1 | 7.1 | 20.3 | 1.1 | -8.8 | -6.6 | 3.1 | 12.2 |
| A068270 | 셀트리온 | KQ | 건강관리 | 23.4 | 21.4 | 19.8 | 9.5 | 9.1 | 8.8 | 20.2 | -7.1 | -11.5 | -17.3 | 0.0 | 170.8 |
| A105630 | 한세실업 | KS | 화장품, 의류 | 12.4 | 11.2 | 8.6 | 4.8 | 4.4 | 2.8 | 12.6 | -1.2 | -10.0 | -11.3 | -5.5 | -20.4 |
| A067390 | 아스트 | KQ | 상사, 자본재 | 11.6 | 11.2 | 6.4 | 3.4 | 3.1 | 2.4 | 7.6 | -2.8 | -11.4 | -10.4 | 0.0 | 55.8 |
| A005300 | 롯데칠성 | KS | 필수소비재 | 9.6 | 9.2 | 8.4 | 1.9 | 1.7 | 1.1 | 20.6 | -0.6 | -5.5 | -2.0 | -1.4 | 4.7 |
| A161390 | 한국타이어 | KS | 자동차 | 9.3 | 4.6 | 3.6 | 0.4 | 0.4 | 0.2 | 18.5 | -1.9 | -4.6 | -3.6 | -2.9 | -3.8 |
| A051900 | LG생활건강 | KS | 화장품, 의류 | 8.4 | 7.1 | 4.6 | 1.4 | 1.0 | 1.2 | 6.0 | -1.8 | -4.1 | -1.5 | -0.4 | 9.3 |
| A095610 | 테스 | KQ | 반도체 | 8.1 | 6.5 | 3.7 | 2.3 | 1.7 | 0.5 | 20.9 | -2.2 | -5.7 | -16.7 | 5.5 | 42.0 |
| A001800 | 오리온 | KS | 필수소비재 | 7.6 | 7.0 | 6.4 | 2.1 | 1.8 | 1.8 | 14.2 | -2.5 | -6.1 | 1.6 | -1.3 | -9.7 |
| A004170 | 신세계 | KS | 소매(유통) | 6.0 | 5.0 | 3.5 | 2.6 | 2.2 | 1.2 | 9.5 | -0.3 | -5.8 | 3.8 | -2.1 | -1.3 |
| A001680 | 대상 | KS | 필수소비재 | 5.8 | 5.3 | 4.6 | 1.0 | 0.9 | 0.5 | 6.6 | -0.9 | -5.7 | -12.3 | 1.2 | 1.2 |
| A033780 | KT&G | KS | 필수소비재 | 5.5 | 4.9 | 3.8 | 0.2 | 0.1 | 0.1 | 10.6 | -1.2 | -6.1 | -6.1 | -0.3 | -2.3 |
| A000210 | 대림산업 | KS | 건설 | 4.2 | 3.7 | 3.3 | 0.5 | 0.3 | 0.1 | 13.7 | -4.9 | -0.7 | -7.6 | -9.9 | 20.3 |
| A011790 | SKC | KS | 화학 | 3.0 | 2.4 | 2.8 | 0.6 | 0.3 | 0.5 | 12.5 | -0.8 | -7.9 | -10.1 | 0.0 | 8.7 |
| A011170 | 롯데케미칼 | KS | 화학 | 2.7 | 2.3 | 1.5 | 0.4 | 0.2 | 0.3 | 6.2 | -4.5 | -4.0 | -5.7 | 5.6 | 75.5 |
| A010130 | 고려아연 | KS | 비철금속 | 2.7 | 2.6 | 1.9 | 0.2 | 0.2 | 0.1 | 10.1 | -1.1 | -5.8 | -16.6 | -0.5 | 10.8 |

주: 3월 22일 종가 기준, 공매도잔고 비율은 3월 17일 기준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